

# “무섭고 놀랍고 걱정된다”...민주, ‘이준석 돌풍’에 촉각

### 새로운 리더십 국민 갈망 표출된 것 민주 대권주자 세대교체론 공방 조짐 소통 답답함에 대한 반사작용 긍정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젊은 층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야당 대표로 ‘젊은피’가 부상하면서 여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용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이준석 현상’에 대해 “무섭다. 무섭다. 만약 우리 당이었으면 어땠을까”라며 “국민의힘이 언제 저렇게 팔목상대해졌나. 정말 놀랍고 부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는) 억울하겠지만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을 보고 뼈아프고 마음이 아팠다”며 “우리로 말하면 2030을 얘기하지 말고 2030의 눈높이와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이준석 현상을 보면) 역동적이고 특독 튀고 생기발랄해 보인다”며 “저게 얼마 전까지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언제 저기로 갔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현상을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이준석 현상은 새로운 변수다. 우리도 2030대책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며 “최근 청년 몫 최고위원이 된 이동학 최고위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 초선인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의 청년 돌풍에 많은 분이 걱정만 앞선 것 같

다”며 “구태와 관습에 찌지 않은 젊은 정치를 응원한다”고 썼다. ‘이준석 현상’은 여당 내 대권주자 간 세대교체론 공방으로도 이어질 조짐이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거에서 이긴 야당은 오히려 세대교체론으로 들쭉거리고 혁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느 유력자가 어느 대선주자를 미느냐를 놓고 정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당대표, 대선주자, 총리, 장관을 하면서 한국정치의 이모양이 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시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했다. 그는 1971년생으로 여당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젊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현상을 정치권 전체가 직시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소통의 답답함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젊은 후보가 제1야당인 그 보수 정당의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은 큰 변화이고 그런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김오수 청문회서 ‘윤석열 검찰’ 놓고 공방

### 여 “아직도 검찰 조직 이기주의 팽배” 야 “대통령 퇴임후 안전장치로 선택”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평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후보라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박

법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됐다”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원 의원도 “윤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력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이대로 안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울려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한 것 아닌가”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파일 차곡차곡 준비중...대통령 적당히 되는게 아니다”

### 송영길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윤석열의 수많은, 윤우진 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대표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주최 집회에 들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 하

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빨리 안 하냐고 하시는데,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박주민 황운하 의원 등 ‘저법회’와 다음주 일정을 받아 경과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다음날인 지난 21일부터 1박 2일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고지인 경북 구미와 대구를 순회하고 24일에는 부산을 연타야 방문하는 등 텃밭 구애에 공을 들였다. 출마선언 전날 공개 일정도 대구 동화사 방문으로 잡았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요영 의원은 컷오프 여론조사 이틀간 영남에 머무른다. 26일 창원엔 소재한 경남도당과 인근 당협을 방문한 뒤 27일 대구로 이동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음주운전 적발·은폐 김광란 시의원 제명 의결

### 광주시의회 윤리위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3년 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광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출석정지 20일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 수위보다 높아 최종 본회의의 표결이 주목된다. 이날 윤리특위 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제명안에 찬성했다. 회의에서는 ‘출석정지 20일’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실 윤리특별위 위원장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대하다. 적발 당시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징계 절차를 진행, 김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제명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최권일 기자 cki@

## 국민의힘 26~27일 대표 예비경선 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첫날인 26일 후보간 경쟁도 더욱 뜨겁게 달아 올랐다. 5명을 추리는 예비경선에서 나타난 당원 투표 비율이 본경선 판도의 가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마선언 때부터 ‘TK 거점유세’ 계획을 밝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부터 대구에 머물고 있다. 비전발표회 등 전대 공식 일정을 제외하고 최소 2주 이상은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다음날인 지난 21일부터 1박 2일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고지인 경북 구미와 대구를 순회하고 24일에는 부산을 연타야 방문하는 등 텃밭 구애에 공을 들였다. 출마선언 전날 공개 일정도 대구 동화사 방문으로 잡았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요영 의원은 컷오프 여론조사 이틀간 영남에 머무른다. 26일 창원엔 소재한 경남도당과 인근 당협을 방문한 뒤 27일 대구로 이동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1%p차...윤석열 30.0%, 이재명 29.0%

### 알앤씨치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간 차기 대권 지지율 격차가 1%p차로 근접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했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치가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해 발표한 5월 넷째 주 정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 30.0%, 이재명 지사 29.0%로 둘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1%p 차로 줄었다. 윤 전 총장은 두 달 동안 6.3%p 지지율이 조정된 반면 이 지사는 같은 기간 7.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3월 29~30일 설문에서 14.7%p에 달했던 격차는 이번 설문에서 1.0%p까지 크게 줄

어들었다. 권역별로 보면 윤 전 총장은 야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이 지사는 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북에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대권주자 중에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0%로 뒤를 이었으며 정세균 전 총리가 3.7%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연고지인 광주·전남북에서 지지율이 20.4%를 기록,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지사(39.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나주 요양병원 「급 매 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상가매매 (상무/치구)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

-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 신축원룸(매매)

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

★4개동(월수익 3천)년 4억 / 매가 52 (용 25억)

-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향 10분 소요

010-4667-9820